

# “文대표 기득권 놓지 않으면 야권 재편 길 찾을 수밖에...”

## 최고위원 전격사퇴 주승용의원 인터뷰

“저의 최고위원직 사퇴가 당내 통합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선 중진의원으로서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내에서 호남 민심의 장구 역할을 했던 주승용 의원이 8일 수석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 전날까지 문재인 대표를 만나 당내 통합을 위한 임시 지도부 구성을 설득했지만 무위로 돌아가자 최고위원직 사퇴라는 ‘옥쇄(玉碎)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이날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에서 이뤄진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주 의원은 “문 대표가 혁신과 희생으로 통합을 이루고 총선 승리와 정권 창출의 비전을 마련하라는 호남 민심과 당원들의 충성을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문 대표가 결단하면 통합의 길을 열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인터뷰 과정에서 ‘안 전 대표가 탈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비주류 의원들의 탈당 주장은 저에 대한 압박용’이라는 문 대표의 발언이 TV 자막을 통해 방송되자 주 의원은 “자신만이 옳다는 태도와 편협한 인식이 친노 주류 세력의 한계”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주 의원은 “문 대표가 정말 통합의 의지가 있었다면 어젯밤이라도 부산에 머물고 있는 안 전 대표를 찾아가 다시 한 번 설득했어야 했다”며 “말로는 통합을 얘기하면서 손에 쥔 기득권은 절대 놓지 않는 것이 친노 패권주의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어 “안 전 대표를 현재 출구가 없는

## “안철수 탈당땐 분당 불가피

### 文대표 호남민심 정면 역행 당 통합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

상황”이라며 “파국을 막아야 하는데 문 대표는 아무런 해법을 제시하지 않으며 오히려 파국을 자초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고위원직 사퇴 배경에 대해 “전날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공동대표 모두 출마하지 않고 당내 중진 등으로 임시 지도부를 구성, 전대에서 추진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거부됐다”며 “혁신 전대로, 임시 지도부 구성도 거부되면서 최고위원직 사퇴로 통합의 길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굳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주 의원은 “저의 최고위원직 사퇴 가능성이 제기되자 중앙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입으로는 통합을 얘기하며 행동은 ‘나갈 사람 나가기’라는 태도를 취하는 패권주의적 행태”라고 분노했다.

당내의 분당론과 관련, 주 의원은 “안 전 대표가 탈당한다면 결국 분당의 수순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마지막까지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그러나 “문재인 대표가 끝까지 기득권을 놓지 않는다면 민심은 돌아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결국 호남 민심과 함께 야권 재편의 길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최고위원이 8일 오전 국회 정문에서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개월 동안의 최고위원 활동에 대해 주 의원은 “당내 패권주의에 맞서 호남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당의 중심을 잡으며 최선을 다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결국 최고위원직 사퇴로 통합이라는 마지막 책무를 다하려 한다”고 말했다.

호남 정치권의 초라한 현실에 대해 주 의원은 “호남이라는 지역·정치적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책임은 피할 수 없다”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치열한 도전과 응전을 통해 정치력을 키워 나가는 것이 호남 정치권에 주어진 과제”라고 밝혔다.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해 주 의원은 “역사의 고비와 위기 국면마다 호남 민심은 분연히 일어섰고 시대의 첨병 역할을 했다”며 “호남 민심에 부끄럽지 않게 시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정치적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이틀째 칩거...안철수 탈당 굳히나

### 행적 오리무중...측근 “다른 선택은 없을 것 같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8일 문재인 대표가 이날 혁신 전당대회에 대해 거부 입장을 거듭 밝혔음에도 공식 입장 표명 없이 이틀째 칩거를 이어갔다. 일각에서는 안 전 대표가 이날 서울로 돌아왔다는 얘기가 돌리고 있어 결단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안 전 대표는 지난 6일 최후통첩성 기자회견에 대한 문 대표의 답이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망설일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됐다. 특히 혁신전대가 거듭 거부된 이상 안 전 대표의 마지막 선택은 탈당이 아니겠느냐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안 전 대표는 애초 예정대로라면 부산에서 이날 서울로 돌아올 것으로 알려졌지만, 돌연 일정을 앞당겨 전날 저녁 부산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후 행선지는 오리무중이었다.

안 전 대표가 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문병호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사잡중’에 출연, 안 전 대표의 행선지에 대해 “자세한 건 모르겠다”며 “부산에 갔다(가) 처가인 여수도 들릴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안 전 대표가 서울로 돌아왔다는 얘기가 나왔다.

안 전 대표와 친밀한 한 지인은 이날 “안 전 대표의 행적이 묘연했는데 서울로 돌아왔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전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서울로 온 안 전 대표가 다시

지방행을 할지, 아니면 결단을 내리고 당장 행동에 옮길지 여부다.

만약 안 전 대표가 다시 지방행을 한다면 아직 최종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서울에 머문다면 결단을 내리고 조만간 탈당 등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안 전 대표가 다시 지방행을 선택하든, 이미 결단을 내렸든 간에 칩거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안 전 대표의 선택지는 당내 혁신투쟁 강화 또는 탈당이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탈당 쪽으로 무게 중심이 쏠리는 양상이다.

안 전 대표의 측근들은 이날 문 대표가 밝힌 입장에 대해 실망을 넘어 허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안 전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소이부담(笑而不答·웃기만 할 뿐 대답하지 않음)”이라며 답했고, 다른 측근은 “기존의 입장에서 한 발도 나아가지 않았다. 실망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측근은 “이제는 막기는 건가”라며 적당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앞서 문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안 전 대표의 탈당 가능성에 대해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저도 그것까지 결론을 같이 내진 않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당은 총선·대선을 승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선거에 패배할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에서 이대로 갈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무책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문재인 “분열 전대 결단코 못받아”

### 관훈클럽 토론...“안철수 공동 창업주, 탈당 말도 안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8일 안철수 전 대표가 혁신전당대회를 거듭 요구한 데 대해 단합의 방법이 아니라 거부 의사를 재확인했다. 또 안 전 대표가 칩거에 들어가 탈당을 시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 “탈당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면 승부로 당 내분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표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에서 “(혁신전대를 받지 않으면) 탈당할 것처럼 하는 여러 가지가 곤혹스럽고 난감하다”며 “안 전 대표는 우리 당을 만든 일종의 공동창업주다. 대표 불러가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탈당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비주류 탈당설에 대해 “공천 불안 때문에,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가 배제된다는 걱정 때문에 탈당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배수진을 치는 것이지 결코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당 혁신문제를 관련, “안 전 대표가 요구하는 것은 강도 높은 혁신이지만 혼자서 해낼 수 있는 일이나”면서 “안 전 대표가 대표하던 시절에 세정지, 혁신을 위한 한걸음이라도 나갔느냐. 그만큼 어려운 일이다. 함께 손잡고 하지는 제안을 하지 한 번 드린다”고 호소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어 안 전 대표의 혁신 전대에 대해 “(혁신전대를 열면) 경쟁하는 전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는다. 전대에서 경쟁으로 끝을 내자는 제안이라면 저는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만약 정의당, 또는 친정배 (신당) 등 세력과 함께 통합하는 그런 전당대회가 될 수 있다면 대표직도 내려놓을 수 있다”고 말해 통합전대 성사시 대표직에서 사퇴할 수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문 대표는 “대결하자고 하면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대표 권한으로 어떤 상처를 받더라도 끝까지 독심 있게 걸어나가겠다”며 “이제는 지금의 지도부가 책임지고 총선승리를 이끌어야 한다. 더 이상 길게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내년 총선에서의 야권연대에 대해선 “지역을 배분하는 식의 후보단일화 연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각각 후보 선출 후 여론조사 등 경선을 통한 단일화를 제시했다.

정기국회 쟁점인 노동개혁 법안에 대해서는 “기간제법, 파견법은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며 이를 제외한 3개 법안에 대해선 처리 가능성을 내비쳤다.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영입 욕심 있다”며 “만약 정치를 하신다면 우리 당과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억 영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 LTD.  
 여행길의 즐거운 동반자!!!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151-1번지 1층  
 대표전화(062)234-3222팩스 (062)234-3141  
 NAVER 조이투어 검색  
 http://www.joytour.kr

**2016년 01월 08일(금) ~ 02월 22일(월)**  
**패턴 : (2박3일) / (3박4일)**  
 출발일 : 1월/07(목),08(금),10(일),11(월),13(수),14(목),16(토),17(일),18(월),19(화),22(금),23(토),24(일),25(월),2월/06(토),07(일),09(화),10(수),12(금),13(토),14(일),15(월),17(수),18(목),19(금),20(토),21(일),22(월)

**무인공항 직항 전세기로 겨울방학 가족,연인,친구 일별오천 여행을 즐겨보세요!**

북큐슈/실속	선착순 24명	4일	성인/749,000원-팬션	어린이/719,000원
북큐슈/품격		4일	성인/799,000원-호텔	어린이/769,000원
야마구치/품격		4일	성인/899,000	어린이/849,000원
야마구치/품격		4일	성인/929,000	어린이/879,000원
남큐슈/품격		4일	성인/1,049,000	어린이/999,000원

**▶ 무안 ↔ 씨엠림 전세기 ◀**  
 - 수요일 출발 -  
**씨엠림/양코르왓(3N)** 4일 성인 /1,100,000원 어린이 /1,050,000원  
 /1,180,000원 /1,130,000원  
**씨엠림 골프** 4일 36홀 /1,450,000 ~ 1,520,000원  
 54홀 /1,550,000 ~ 1,620,000원

- 토요일 출발 -  
**씨엠림/양코르왓(3N)** 5일 성인 /1,110,000원 어린이 /1,050,000원  
 /1,180,000원 /1,130,000원  
**씨엠림 골프 54홀+양코르왓관광** 5일 /1,550,000 ~ 1,620,000원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해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제2003-1호]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  
 ●공동투어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보험 가입(여행비용1억원,국내여행 5천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 및 부부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교통편 :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전차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억 영입보증보험 가입 / 여행경계 가입업체 ●예약시 계약서(해상수급)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비(호텔, 식사, 가이드, 교통비, 숙박비, 관광, 각종 비자비용 별도) ●출발인원 : 상황에 따라 다름